

통권 제 230호

강남. 라 00943

2566
2022

12

원정 대상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7
큰 단련의 시간



불교이야기
보시 1



십선성취
트라우마와 무상

 불교충지중



영원한 진리와 함께

위드다르마

With Dharma

불교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완성

불교는 내세주의적인 생천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일종의 방편교일 뿐이고 현세에 있어서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을 체현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마음의 등불 _ 30

먹고 사는 일

_ 하승현



문화재 해설 _ 54

송백의 마음, 세한도

_ 위드다르마 편집실



여행여담 _ 62

청춘의 춘천下

_ lovely찌이

위드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 12 불교이야기
- 17 죽비소리
- 20 살다보면
- 26 산책
- 28 우리절 노래꽃
- 30 마음의 등불
- 34 지혜의 뜨락
- 38 십선성취
- 42 디딤돌
- 46 경전에서 찾은 지혜
- 50 가배이야기
- 54 문화재 해설
- 59 차향기
- 62 여행여담
- 66 서원당 안의 불교
- 68 뜻 바꾸기
- 70 씨앗 한 알
- 74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일정

- 불공 잘해라 - 제2장 큰 단련의 시간 - 김천
- 보시布施 1 - 화령 정사
- 작은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일들 - 김봉래
- 이별애고 - 이육경
- 무제 - 김대곤
- 찬불가 <당신의 미소> - 묘원화 전수
- 먹고 사는 일이 내겐 정말이지 골칫거리 - 하승현
- 편견을 버리면 인재가 보인다 - 방귀희
- 트라우마와 무상 - 남해 정사
- 선정으로 이끄는 사마타 수행 - 신진욱
- 뉘지 않으면 천한 사람이 된다. - 불교총지중 법장원
- 사찰의 커피문화 - 김상미
- 송백의 마음, 세한도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차 꽃 이야기 - 김정애
- 청춘의 춘천下 - lovely찌이
- 49재와 제사, 재와 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 혜광 정사
- 삼종만다라 - 김재동
- 히말라야의 별, 깊이 바라보다 - 법상 스님

나라가 잘되는 비결

공자의 수제자 중 자공이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며
‘나라가 잘되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자는 족식足食과 족병足兵,
신信이라고 답했습니다.

족식은 생활의 안정이고 족병은 자주국방이며
신은 국가의 공신력을 뜻하기에
경제 안정과 국방,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 자공은 공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스승님은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공자는 ‘족병’을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공은 이에 대해 남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더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릴지
다시 물었습니다.

공자는 망설임 없이 ‘족식’을 택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신’이었는데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는 군대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고
경제력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이다.”
신뢰는 얻는 것보다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어려운데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종이와도 같아서
구겨지고 찢어지고 나면 절대로 다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는
바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2년 10월 21일 자>

불공 잘해라 제2장 큰 단련의 시간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조자'
'인생탈출-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7화 - 귀국과 해방

1945년 대성사는 매일 숨죽여듣던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주축국이던 이탈리아와 독일의 항복 소식을 듣고 있었다. 유럽전선에서 승리를 거둔 미군 병력이 태평양 전쟁에 집중하여 남태평양부터 일본의 패전이 시작됐고, 일본 본토를 향해 폭격기들이 날아와 도쿄며 주요 항구들이 불바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겉으로 승리를 장담해도 도쿄는 저항 한번 못한채 불타고 있었다.

조선 땅에서 일본은 패전의 순간까지 자신들의 승리를 선전하고 있었으나 대성사는 전황의 정확한 향배를 알고 있던 터라 주변에 조심스럽게 전쟁이 흘러가는 소식을 전하곤 했다. 특히 자신이 맡은 일이 적십자사 관계라 전쟁 막바지의 재난을 구하는 인도적인 업무에 더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전세가 기울자 일제의 압박도 강해졌다. 심지어 부녀자들까지 군사훈련으로 내몰았고 쌀 한 톨 낫그릇 하나까지 공출을 명분으로 빼앗아갔다. 비행기 헌납을 빌미로 현금을 강요하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입에 발린 선전을 내세웠다. 그러나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은 미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연일 전함은 침몰하고 섬은 빼앗기고 전투기엔 조종사 대신 어린 학생을 태워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밀고 있었다. 제정신이 아닌 전쟁의 광기에 휩싸여 대책 없는 전선을 펼쳤던 것이다.

적십자 업무를 하면서도 전해오는 전황에 귀를 떼지 않았다. 특히 태평양의 주요 격전지에서 미군이 파죽지세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군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곧 일제가 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은 더 이상 미군에 맞서지 못했다. 가공할 폭탄과 무력 앞에 고작 일본도를 빼들고 천황 만세를 외치며 무모한 돌격을 벌이다 희생될 뿐이었다.

사람뿐 아니라 국가와 집단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욕심은 눈을 가리고 지혜와 자비심을 거두어간다. 일제는 멸망으로 치닫는 중에도 야욕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일을 통해 대성사는 세상사를 내다보는 통찰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대성사는 일

제의 긴 밤이 이제 곧 끝나리라는 것을 알았다. 빛은 어둠을 물리칠 것이고, 압제의 고통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드디어 모두의 희망대로 민족의 빛을 다시 찾은 광복의 날이 왔다.

조국의 광복이 왔다. 갑작스런 해방을 맞아, 한편에선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또다른 편에선 혼란의 움직임이 있었다. 각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해방을 자축하는 인파들이 몰려나와 행렬을 이루었다. 군민대회나 면민대회 등을 통해 경찰서와 행정기관을 접수하는 곳도 있었다. 악질 친일파에 대한 비난도 거세졌다.

좌와 우의 격돌이 이어지고, 더해서 친일파에 대한 단죄 요구까지 그동안 억눌렀던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대성사의 고향 밀양도 혼란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마찬가지였다. 대성사는 적십자사 위원으로 군청에서 근무하여 업무가 일제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방 정국에도 공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 구호 업무는 오히려 일거리가 늘었다.

밀양에도 인민위원회가 생겼고, 1946년 10월 대구에서 미군정의 쌀 배급 정책에 항의하는 소요사태가 일어났다. 생필품 부족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 억눌린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대구 사

태는 인근 영천으로 이어졌고, 밀양의 민심도 고요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합법적인 활동을 벌이던 공산당이 불법화되어 일부는 월북하고 또 일부는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의 전신인 야산대(野山隊)가 되어 경찰지서와 우익청년단 사무실 등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제의 침략과 만주의 독립전쟁,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모두 겪은 대성사는 민심과 현실의 고난을 더 깊이 고민 하게 된다. 세상은 고해이며 샷된 욕망은 고통을 더 크게 할뿐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또렷하게 지켜본 것이다. 이때부터 불교에 대한 관심과 탐구가 더 깊어졌다. 세상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과 수행이라는 사실을 절감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미군에 의해 치안과 행정 업무가 집행되고 있었는데, 대성사는 미군정으로부터 밀양공립농잠중학교의 행정관에 임명돼 학교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과거 공직을 시작한 것도 교육위원회의 일이었고, 혼란의 시기에 인재 양성은 새로운 조국을 위해 필요한일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일을 맡게 된다.

밀양공립농잠중학교는 1924년 3년제의 밀양공립농잠중학교로 개교하여 해방 직후에는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아우르는 6년제로 변경됐고, 이후 70년대에는 전문대학으로 바뀌었다가 현재

부산대학교에 통합돼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로 변경되었다. 밀양, 진주 등지는 양잠산업이 발달했는데, 밀양공립농잠학교가 영남 일대 섬유 산업의 인재를 키워내는 모태 역할을 한 것이다. 해방된 조국의 산업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벽찬 사명감과 기대에 꼭 맞는 인물로 대성사가 선발된 것이다.

밀양공립농잠중학교는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기술을 배우러 당시 밀양뿐 아니라 김해와 진주 등지에서도 진학하는 명문 학교였다. 그러나 시대의 조류에 따라 학생과 학교 전체는 좌익에 경도돼 있었다. 학생과 교사들까지도 이념과 사상을 드러내며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이런 격동 속에서도 대성사는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 어떤 극단적인 길도 여의어 중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펼치신 중도와 정견, 치우치지 않는 바른 사유와 인육의 가르침이 현실 속에서 더 분명해졌다.

이 시절의 대성사는 누구의 편을 들거나 이익을 좇거나 하지 않고 불편부당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 늘 하던 대로 정확한 시간에 흐트러지지 않는 몸가짐으로 등교해서 해야 할 일을 처리했다. 덕분에 좌와 우, 학교 당국과 학생들 어느 편으로부터도 비난과 항의가 없이 학교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했다. 선택을 강



1946년 6월 20일 해방 후 농잠학교 첫 졸업_맨 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대성사

요하고 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돌리던 시절에 교육 행정관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치우침 없이 처리했다. 워낙 원칙을 지키고 사사로운 정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에 약간의 불만은 있었어도 원한을 사거나 크게 반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은 이념 투쟁과 정치적 이해의 대립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대성사는 오히려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주말이면 가족을 돌보거나 표충사에 들러 불교 수행관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충사는 임진왜란 때 자신을 던져 고해의 민중을 구하고자 했던 사명당 유정 대사를 기리는 사당이 있는 곳으로, 애

국과 수행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배울 수 있는 도량이다.

하지만 개인의 평온한 시간이 주변의 불길한 분위기를 바꿀 수 없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운명은 점점 고난의 불씨가 커졌다. 대성사는 닥쳐올 운명의 불길을 예감한 듯 학교 업무가 끝나면 불교 관련 책과 경전들을 모으고 살펴보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참선과 명상에 깊은 시간을 보냈고, 관세음보살을 비롯한 불보살의 명호를 외는 칭명염불稱名念佛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일이 잦았다.

미군정이 부리를 내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자 사회는 또 한 차례 격동을 겪었다. 1948년 2월 소위 '2.7 구국투쟁'으로 전국 단위의 파업이 일어난 것이다. 소요 당일 밀양은 마침 장날이라 인파가 몰려들었다. 정치적 소요의 바탕에는 미군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깊이 깔려 있어 소동은 급격히 번져 갔다. 밀양 농민들은 경찰지서를 공격했고 모든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

이렇게 소요가 격해지자 밀양공립농잠학교를 비롯한 각 학교 학생들은 동맹 휴학에 참여했다. 시위에 나섰던 많은 학생이 체포되는 일이 생겼다. 교육자로서 대성사는 깊은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소란을 진정시키고 또 한편으로 체포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혼란이 계속된다 하여 스승의 역할과 태도가 바뀔 수는 없는 법이다. 대성사가 후일 총지종을 창종하고 천명한 스승의 사명에서 관계를 스승과 학생으로 바꿔 살펴보면 당시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스승은 매일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 그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가장 앞자리에서 활동하므로 그 사명이 무겁고 커서 사회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한다.

스승은 세상의 거친 흐름과 변화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세워 그에 따라 생활하여 인격을 완성하고, 세상의 평판과 이해에 따라 무릎 꿇거나 흔들리지 않는 지조와 정의에 투철한 모범적인 스승이 되어야 한다.”

이 모습을 당시 대성사의 삶에 비춰보면 어떻게 학생들을 이끌고 가르쳤을지 짐작할 수 있다.

삼륜청정과 무주상보시

보시는 베푸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대승불교의 수행인 육바라밀의 하나로써 대승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 중의 하나이다. 육바라밀 가운데에서 보시를 가장 첫머리에 놓는 것은 보시가 가장 쉽고도 또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는 것이 보시이다.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만 보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넉넉한 자가 인색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보시이다. 말하자면 무엇이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보시이다.

보시는 과거로부터 공덕을 쌓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류 공통의 선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종교이든 선행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보시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떤 종교에서는 보시를 가장하여 신도들을 착취하는 경우도 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그냥 베푸는 정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성



하는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아 보시바라밀이라 한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완성한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보시바라밀이라 하면 보시의 완성, 혹은 완벽한 보시를 의미한다. 그러면 완벽한 보시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반야라는 큰 지혜에 의하여 하는 보시로써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초월한 보시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보시를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라고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듯이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않고 베풀어 주는 그러한 보시이다.

사람들은 보시를 한다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선물을 생각해 보자. 내가 누구에게 선물할 때에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선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물을 한 다음에는 은근히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이다. '내가 이런 선물을 주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저 사람도 나에게 이 정도의 선물은 해 주겠지' 혹은 '내가 이런 선물을 해 줬으니까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줄 거야' 등등 많은 생각이 개입된다. 보시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내가 누구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시를 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어간다. '내가 이렇게 보시를 했으니까 뭔가 공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많은 보시를 했으니 복도 많이 받게 될 거야' 라든지 혹

은 무의식중에서도 보시를 받는 대상에게 '내가 너보다 모든 게 나아'라는 우월감이 작용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보시를 하면서도 은근히 공덕을 기대한다거나 보시를 받는 대상에게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하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가 될 수 없다. 또한 보시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 많다. 그저 내가 쓰지 않는 것이어서 걸리적거리니 누구에게 떠맡기듯이 주면서 그것을 보시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흠쳐 온 물건을 주면서 생색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보시라는 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베풀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래서는 참된 보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보시에는 보시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이,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의 3가지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삼륜상三輪相이라고 한다. 이 삼륜의 상을 마음에 두는 것을 유상보시有相布施라고 하는데 우월감에서 보시를 한다거나 보시를 하면서 받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혹은 부정하게 취득한 물건으로 보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의 유상보시가 된다.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대상, 보시하는 물건 모두가 순수하고 정당해야 한다.

『심지관경』에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물건의 3가지가 청정하여 공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을 불교

에서는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고 한다.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불순한 생각이 개입하거나 주는 대상물이 순수하지 못하면 청정한 보시라고 할 수 없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나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을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면서 여기에 어떠한 불순한, 그리고 차별적인 생각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이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베풀었다.”라는 자만심 없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베푸는 것이 곧 무주상보시이다.

무주상보시를 하려면 반야의 지혜에 의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시는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는 참된 보시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쉽고도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보시의 완성을 보시바라밀이라 한다.

나이가 들며 철이 드나 싶으면서도 인생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느낌이다. 그 중에 하나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오며 손을 씻지 않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는 사이에 눈길을 마주쳐도 인사를 안 하는 일이다. 작은 일에 너무 소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들 왜 그러는지 정말 궁금하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이해하지 못할 또 하나의 일을 경험해야 했다. 거의 모든 매체가 참사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는 상황인데 한 매체가 단독 보도를 내기 위해 후순위로 돌린 것이다. 물론 단독 기사를 톱으로 낼 수 있겠지만 전 국민 아닌 전 세계인이 경악할 사건 앞에서 그 단독 보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명은 이념이나 종교를 넘어서는 최고의 가치라고 배웠고 그것이 옳다고 믿어온 필자로서는 충격이었다. 어떤 가치가 생명보다 우선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러한 잣대를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100% 확신하는 내 생각이 언제나 공

감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아니 꼭 맞지 않을 수 있구나. 아!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거부하기보다 수용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되는구나.

세상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가득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서 인위적인 살상은 계속되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으며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 보통의 경우라면 폭력은 좋지 않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할 테지만 상황 탓을 내세우고 서로를 비난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한다. ‘어쩔 수 없어. 다 너 때문이야!’

각종 사안을 두고 사람 간에, 집단 간에 관념과 시각의 차이는 너무도 크다. 정말 객관적인 사실, ‘팩트(fact)’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서 불화는 계속된다. 그리고 도저히 상호 이해와 소통, 협력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상대를 향해 연일 화살을 쏘아대는 여야 정치권의 현실도 그런 선에서 한 치의 변화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 말만의 협치, 말만의 상생, 헛구호만 난무한다.

얼마 전 예상치 못한 설화^{설화}를 겪었다. 그간 나누어왔던 상

호간의 교분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문자메시지로 문답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나 싶지만 따지고 보면 각자의 입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끼리 부딪혀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다. 잘못하면 인간관계까지 엇나가 버릴 상황에서 다행히 잘 풀렸지만 그래도 마음에 상처는 남는 것 같다.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늘 있다. 그러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회광반조^{迴光返照},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한 구절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를 보낸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것은 믿고 의지할만한 성현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바람의 노래’ 끝소절도 좋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불보살님의 가호가피로 큰 지혜를 이루옵고 널리 세상에 안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별애고 離別愛苦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늦가을의 끝자락에 사랑하는 한 사람을 떠나보냈다. 생로병사(生老病死),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필연이며 불생불사(不生不死), 생겨나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는 영원한 이별의 순간. 생명의 소멸 앞에 사람은 어찌 그리도 무력한가.

그녀가 남긴 미완(未完)의 노트를 열어 본다. 첫 장에 써놓은 '죽음이란 인생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일깨워서 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선물'이라는 글귀가 마치 자신을 위로하는 그녀의 다짐인 것 같아 마음이 젖어든다. 살고 싶었을 것이다. 두려웠을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혼자 감내할 수밖에 없는 궁극의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글 한 편을 옮기며 두 손을 모아 본다. 그녀가 다다르는 내생(來生)이 부디 극락정토(極樂淨土)이기를. 안온하고 평화로운 그곳에서 부디 못다 이룬 현생(現生)의 꿈 이루기를.

6년 전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았던 날보다 더 아득해졌던 건 3년 전 재발 진단을 받았을 때였다. 처음 발병했을 때는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복직해서 다시 일할 수 있으리라는 희



망으로 투병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재발을 하고 보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였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체력은 바닥이 났다. 업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수간호사 자리를 내놓고 평간호사로 내려앉았지만 그마저도 감당할 힘이 없어서 결국은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는 상실감과 가족에게도 짐이 되고 있다는 자책감, 사회에서도 인생에서도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절망감은 삶의 의미마저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다발골수종, 흔하지 않은 병이었다. 병보다도 그와 관련된 임상

학적인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게 더 두렵고 막막했다. 혈액 암 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다발골수종은 재발이 잦고 완치가 힘든 병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학 서적을 뒤져 봐도 오래전에 나온 절망적인 연구보고가 고작이었고, 병동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간호사가 없었던 터라 많은 것을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20년이 넘도록 간호사로 일했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나를 많이 외롭게 했다.

그래도 현장으로 돌아가니 살 것 같았다. 조혈모 자가이식을 시작으로 항암을 마치기까지, 어둡고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다시 간호사복을 입었을 때, 나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진심으로 환자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돕게 된 간호사로서의 변화에 깊이 감사했다.

3년 만의 재발! 운명은 나를 비켜가지 않았다. 아팠다. 힘들었다. 괴로웠다. 결국 나는 두 손을 들었다. 20여 년간 나의 자존심이자 자긍심이고 자부심이었던 간호사 가운을 벗으면서 나는 패배자의 자괴감으로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 그 어떤 희망도, 사회적인 고립감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조차도 없었다. 살고 싶은 생각마저 사라졌다. 두렵지 않다는 것, 세상에 그것보다 더 처절하

고 아픈 말이 또 있을까.

이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병실에서 발견한 『행복편지』라는 한 권의 책이었다.

먼저 입원해 있던 환자가 두고 간 듯, 창문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던 그 책이 눈에 들어온 건 고열로 몇 날 며칠 진을 빼고 난 후였다. 책을 읽겠다는 생각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책장을 넘겨보는데 ‘하루하루가 암에 답하는 삶…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서문 제목이 눈에 띄었다. “그게 왜? 어째서 행복해?”라는 반발심에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대장암 환자였던 글쓴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암과 맞서 싸워 이기자는 투병기라기보다는 암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자는 따뜻한 위로였고 위안이었다.

책 속에 담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내 삶의 궤적을 돌아보게 했다. 늘 최고를 향해 달렸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으며, 매사에 최선을 다했던 수간호사.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기를 원했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강하게 질타했었던-깐깐할 만큼 꼼꼼한 성격을 지닌 완벽주의자가 거기 있었다.

책은 또 내게 원대한 목표나 큰 기대가 실망과 상처가 될 수 있

다는 것도 깨우쳐 주었다. 목표를 낮추자. 기대를 내려놓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내 몸을 사랑해 주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암 환자들의 숙명이다. 어디가 아프거나 열이 조금만 나도, 기운이 떨어지고 몸이 처져도 재발이 아닐까 염려가 앞선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걱정근심 대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틈틈이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책을 읽으며 세상과 만나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완결이다. 그것이 언제이든 ‘후회 없도록’이라는 거창한 욕심을 버리고 ‘후회가 적도록’ 알찬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하는 여유도 생겼다.

오늘도 나는 고통이 잠시 잦아드는 시간 틈틈이 지난 6년간의 기억을 정리하고 있다. 다발골수종이라는 흔치 않은 병을 짊어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던 나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빈약하나마 그의 발밑을 밝혀 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고 싶다.

오래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손뼉 치며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식들을 본 적이 있다. 일곱 명의 자식들 가운데 아들 둘을 사제로, 딸 셋을 수녀로 봉헌한 어머니의 유언에 따른 일이라고 했다. 어머니에게 그날은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기쁜 날이었다. 그들이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천국, 그곳은 불가^{佛家}의 극락정토와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다던 그날의 생각이 새삼스레 가슴에 닿아온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람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은 모두 다 죽는다. 마치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 것처럼 어제 같은 오늘을, 오늘 같은 내일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고 마침내 죽음과 조우하게 되는 일이다. 그게 자연의 순리이고 삶의 여정이다. 그나마 위안을 삼자면 혼은 사멸되지 않는다는 것. 죽어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떠난 후에도 전생^{前世}과 현생^{現生}, 내생^{來生}으로 이어지는 삼생 윤회^{三生輪回}를 거듭한다고 하지 않던가.

주어진 날,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야 할 까닭이 생겼다. 생의 갈피는 다들지언정 혹시 모를 일이다. 삼생의 어느 길목에서 그리운 그녀를 만나게 될지도. 그때는 웃어야겠다. 눈물 없이, 활짝.

겨울 앞두고
좀처럼 적응되지 않는
바람 앞에서 보면

악착같이 견디고 견디던
몇 안되는 잎들이 흩어지듯
죽어 떨어진다

마치 내가 지켜봐줘야
갈 것처럼 미련이 없다

붉은 가슴도
몽개진 가슴도
바스락 거리긴 매 한가지

하늘도
얼어 죽은듯 차갑고
구름도 쪼개져 떨고있네

저 멀리 서 있는 산
굽어진 허리들
전부 죽어 엎어져 무슨 생각일까

길어진 노을만이
삐걱거림으로 내 앞에서
늘어진 사연을 토해내네

어스럼 하늘
차디찬 탄산수의 철없는
종알거림처럼

톡 톡
별 들은 태어나네

가장 먼 곳을
가깝게 느끼네
가고 오고 오고 가고

생각이 오래도록
머무는 날이네

출다!

찬불가

<당신의 미소>

최영철 작곡, 손정윤 작사

묘원화 전수
벽롱사

당신의 미소

최영철 작곡 / 손정윤 작사

Moderato ♩ = 87



1.당 신의 따스한 눈길을 우러르고 있노라면
2.포 근한당-신가슴에 이몸안겨들어가면

5 천만가지근심걱-정 모-두사라-집니다
극락정도연화 세-계 여긴듯싶-습니다

9 당 신의 맑은눈길을 우러르고 있노라면
지친몸 아픈영혼도 당-신의 품안에서

13 우주의삼라만-상-도 구슬로빛-납니다
법열의넘쳐흐르는눈물-이 방울방울-됩니다

17 당 신의 따스한 눈길을 - 우러르고 있노라면 -
포근한당-신가슴에 - 이몸안겨들어가면 -

21 천만가지근심걱-정 모-두사라-집니다 당신
극락정도연화 세-계 여긴듯싶-습니다

25 의-신비로운미소에 내-인생을말겁니-다 당-

29 신의거룩한이름-에내-인생을말겁니-다 다아아

불교 법회와 행사를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다. <삼귀의>와 <사홍서원>이다. 이 두 노래는 충남 금산 출신의 최영철 선생님 곡이다. 최영철 선생님과 대전 만보사에서 인연이 있어 살펴보다 이 종만 선생님의 금강신문(2018)에 실린 글을 보고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어 위드드라마에 일부를 옮긴다.

최영철 선생님은 1973년 찬불가공모전에 당선되어 평범했던 음악교사에서 불교음악인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후 200곡이 넘는 찬불가 작곡과 불교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셨으며, 특히 50여년간 대전·충청지역의 찬불가 발전을 위하여 합창대회를 개최하고 합창단을 지도하는데 온 정성을 쏟으셨다. 이러한 공덕으로 최영철 선생님은 조계종 총무원에서 지난 10월 17일, 올해의 불교음악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셨다. 올해 98세이신 선생님이 평생토록 불교음악을 위해 매진해 오신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더욱이 기쁘다.

<당신의 미소>는 최영철 선생님의 200여곡 중에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다. 4/4박자의 편안한 멜로디를 듣고 있으면 내 얼굴에도 절로 미소가 떠오른다. 선정 후에 찾아오는 고요한 마음이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부처님 가르침에 이 존재를 오롯이 내맡김으로서 얻는 충족감이 가락과 가사에 잘 묻어난다. 노래를 부르고 듣는 것만으로도 선정을 취한 효과를 주는 고운 노래다. 밝고 경쾌하면서도 가볍거나 튀지 않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멋스럽다.

먹고 사는 일이 내겐 정말이지 골칫거리

하승현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扶筇登眺渺茫間	지팡이 짚고 올라 아득히 먼 곳 바라보니
萬頃滄波萬點山	만경창파에 수도 없이 많은 산들
口腹於吳眞一崇	먹고 사는 일이 내겐 정말이지 골칫거리
不將身世老江干	강가에서 늙어가지 못하는 신세라네

- 어숙권(魚叔權)의 <패관잡기(裨官雜記)>에 인용된 시은(市隱) 박계강(朴繼姜)의 시

이 시는 중종 대부터 선조 대 사이에 활동하였던 여항 시인 박계강의 작품입니다. 유재건(劉在建, 1793~1880)의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에 박계강과 관련된 일화가 전하는데, 그의 집안은 부유했으나 교육을 받지 않아 나이 사십이 될 때까지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떤 하인이 그에게 편지를 내 보이며 어디에 전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모른다고 하자니 창피해서 바빠서 볼 시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깔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발분하여 수년 간 글을 읽어 문장 실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박계강은 당시 명사들과 어울리



면서 시를 잘 짓는다는 명성을 얻었는데, 위의 시는 목계^{木溪} 강혼(姜 誦, 1464~1519)과 함께 남산에 올라 지은 것입니다. 목계가 운을 불러주면서 시를 짓게 하자, 박계강은 그 즉시 시를 지어 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시인은 남산에 올라 한강을 바라봅니다. 강물은 넘실넘실 흘러가고, 강 건너 산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흐르는 물과 먼 산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정신이 상쾌해지면서 늘 이렇게 강가에서 자연을 벗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여유를 찾을 형편이 못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 벼슬을 한다면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괴로움이 덜하겠지만, 여항에서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재능을 칭찬해 주는 양반들과 가끔 만나 시를 짓는 것을 낙으로 삼지만, 재능이 있어도 뜻을 펴기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슬프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가 한수산님이 지은 <미지의 새>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 중에도 이런 심정을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출퇴근이라는 생활, 그 속에 무언가 진정한 뜻이 남아 있어야 할 게 아냐? 그런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거든. 그저 무의미한 일상사가 있을 뿐이야. 한때는 즐겁기만 했던 그 일상사가 차츰 괴롭게 느껴져. 마음의 어딘가에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은……”

박계강도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저마다 자기의 재능에 맞는 일을 하는 세상은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마다 표정이 달라지는 그림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공감을 사는 것을 보면 먹고사는 일이 즐겁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지금, 올 한 해 고생을 함께한 주변 사람들과 서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 있는 것 같던 마음이 서로의 위로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견을 버리면 인재가 보인다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
 <E美지> <순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심상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인류의 불행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된다는 미국의 법철학자 누스바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살다보면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그것이 쌓이면 분노하게 된다. 사소한 차별이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만 근본적인 차별은 집단적 혐오로 나타나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들다.

집단적 혐오로 흑인, 유색인에 대한 차별이 현대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 집단적 혐오를 깨는 것은 그 집단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민중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이번에 영국에 첫 비백인 총리가 탄생했다는 언론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서 우리 인간 사회의 이유 없는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영국 역사상 백인이 아닌 사람이 총리가 된 것이 처음이라는 것은 그동안 영국에서 유색인은 소외계층으로 사회지도층 진입이 막혀있었다는 뜻이다. 영국의 첫 비백인 총리가 된 42세의 리시 수낙은 인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알다시피 인도는 영국 식민지였다. 핍박을 받았을 식민지 출신이 영국의 최고 통치자가 된 것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해준다. 영원한 지



배자도 영원한 피지배자도 없다. 아버지가 의사이고 어머니가 약사인 수낙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철학, 정치, 경제를 공부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경영대학원 MBA를 마치고 금융계로 진출하였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똑똑하고 쾌활하며 예의바르다고 칭찬한

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로 자기 관리를 잘하여 그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인기 덕에 2015년 총선에 출마하여 정치에 입문한다. 존슨 총리 때 재무 장관이 되어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수낙은 영국 보수당 총리 후보로 출마하는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고, 재무장관으로서 코로나19 경제대책을 성공적으로 이끈 능력을 인정받아 첫번째 비백인 총리라는 역사를 만들었다. 스탠퍼드대학교 유학 시절 만난 아크샤타 무르티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억만장자 인도 기업인의 딸이다. 보통 인종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인과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그는 인도여성과 결혼했다. 수낙 부부의 종교는 인도의 대표 종교인 힌두교이다. 따라서 힌두교인이 영국총리가 된 것도 처음이다.

사회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구상에서 쇠퇴해가는 국가로 영국을 꼽는다. 그러나 수낙은 소통능력이 뛰어나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영국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언론에서 수낙이 금수저라고 한 것은 인도의 풍습에 따라 갑부 아버지가 준 지참금을 갖고 시집을 온 부인 덕분이다. 그가 유색인종으로 겪었을 차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언론을 보면서 인간 사

회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 사회는 4성 계급이 아직도 존재할 만큼 신분에 의한 차별이 심각하지만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에는 인도의 4성 계급 중 가장 천한 계급인 수드라 출신도 있다. 불자들이면 누구나 이름을 알고 있을 우바리^{優婆塞}이다. 그는 석가족 궁중 이발사였다. 석가족 왕자들이 출가할 때 같이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었는데 부처님 제자 중 계율을 가장 훌륭히 지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마하가섭의 주재 하에 경전을 결집할 당시 율^律을 확정짓는데 우바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한다. 본인이 부처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계율에 있어서는 우바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후대에 우바리는 지계제일^{持戒第一}의 제자로 기록되었다.

이렇듯 부처님은 계급제도인 카스트가 엄격했던 그 당시에도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은 오늘의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 지구가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피부색을 갖고 차별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다. 모든 중생은 불성^{佛性}이 있기에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인간 스스로 차별을 만들어 서로를 밀어내는 행동은 인류 최대의 불행이다.

트라우마와 무상

남해 정사

단음사 주교

2022년 10월 마지막 날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또다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반복되는 듯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트라우마는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으로 외상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 따위가 원인이 되어 외상과 관계없이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트라우마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때 마치 몸에 상처가 생기듯 마음에도 상처가 생긴다.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사람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트라우마로 인한 마음과 몸의 변화나 고통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태원의 사고를 목격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다.



부처님께서서는 열반에 드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부처님께서서는 이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 선법을 계발하는 것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정진 노력하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또한 “삶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누리고 있는 복락이나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되도록 많은 공덕을 쌓고, 지혜를 계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죽음을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셨다.

이처럼 부처님께서서는 열반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무상의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복을 짓고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다. 무상이란 일체의 만물은 끊임없이 생멸변화하며, 한 순간도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겨난 것은 소멸하며, 모인 것은 흩어진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인^인과 연^연이 서로 결합하여 생겨난 모든 현상은 이 무상의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들은 무상이라는 말을 허무하다는 말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고, 꽃이 지는 것을 허무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상은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반복된 삶을 산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삶이 매번 다르게 다가온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해 가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고,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나이가 들면 성숙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나이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오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다. 내일이면 오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부모님에게 잘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무상’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선정으로 이끄는 사마타 수행

신진옥 법사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사마타 수행은 마음을 완전히 집중하는 선정(禪定)을 목적으로 한다. 사마타를 성취한다는 것은 거친 흥분과 정묘한 흥분, 거친 해이감과 정묘한 해이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마음은 대상에 고정되며 다른 감각들은 닫힌다. 그리고 대상에 몰두하지만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는다. 마치 아무런 돌기가 없는 얼음판 위를 하기 퍽이 미끄러지는 것처럼 어떤 인위적 노력이 필요 없다. 또한 사마타가 나타나면 급격하게 신체적 변화를 느끼게 된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황홀경이 몸과 마음에서 밀려오기도 한다. 온몸과 마음을 채우는 이런 황홀경은 별로 쓸모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분명한 표시인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홉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항상 밖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안의 대상으로 향하게 하여 주의를 내면에 고정시키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이다. 호흡 알아차림에서 콧구멍이나 윗입술 위에서 호흡이 지나가는 접촉 감각에 주의를 둘 수 있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안의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오래 고정시켜 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전히 마음속에 잡다한 재잘거림이 있어서 대상이 아주 명료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때 산란이나 혼침으로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것을 인식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산란·혼침과 차분히 머무는 마음이 번갈아 나타나는 상태가 지속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30~40

분 정도 주의를 대상에 머무를 수 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거친 흥분 때문에 대상에 대한 주의를 완전히 놓치거나 가끔 명상에 대해 잊게 된다. 하지만 아주 빠르게 돌려놓을 수 있게 되어 그리 오랜 시간 떠나 있지 않게 된다.

네 번째는 밀착해서 고정하는 단계인데, 마음이 깊은 고요함에 잠기고 한 시간 정도는 대상을 놓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는 거친 흥분이 일시적으로 극복되며, 마음챙김의 힘이 최고조에 달한다. 그리고 안정된 명상으로 마음은 서서히 길들여지고, 자신의 마음과 다투는 일이 적어지며 산란은 점차 가라앉는다. 이 단계에서는 명상 과정을 감시하는 과정인 내성이 특히 중요하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거친 해이감을 극복하게 된다. 명상대상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의의 생생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대상에 대한 더 밀도 높은 명료한 마음챙김의 순간을 성취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정묘한 흥분조차 제거되어 평안해진다. 이 단계를 성취할 즈음이면 우리의 감각은 상당히 줄어들고, 외부 환경에서 오는 자극이 있다 해도 아주 적어진다. 이 시점에서 명상에 대한 모든 정서적 저항은 사라지고, 주의의 지속성은 매우 견고하게 유지된다.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엄청나게 생생해진다. 이 단계에 안주하기가 아주 쉬운데, 그래도 얻을 것이 남아 있다.

우리가 좀 더 수행해서 가장 정묘한 해이감까지 극복하면 일곱 번째 주의단계를 성취한 것이며, 이를 완벽한 평안이라 한다. 그래도 아직은 내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해이감이나 흥분이 일어날 위험은 사실상 없다. 여덟 번째 단계에서는 명상을 시작할 때 별 노력이 필요치 않고, 일단 시작하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진행된다. 이 시점에서는 내성이 필요치 않으며 외부적 감각들은 닫힐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안으로 잠겨 있고, 그저 그 상태를 지속한다. 시간이 느껴진다. 조금만 노력해도 마음이 한 곳에 몰입하여 선정에 든다. 하지만 분별과 번뇌가 완전히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별과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질 때 집착하지 않고 확고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여덟 번째 주의단계에 익숙해진 힘으로 평등고정이라는 아홉 번째 단계를 얻는다. 그저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변성이 일어나게 된다. 에너지가 몸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새롭게 조정된다. 말하자면, 새로운 회로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명상 상태에 머무를 수 있고, 특정한 대상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려 인지할 수 있다.

답지 않으면 천한 사람이 된다

불교총지종 법장원

불을 섬기는 한 바라문의 집에 성화(聖火)가 켜지고 제물이 차려져 있었다. 마침 부처님께서 거리에서 탁발을 하면서 그의 집 앞을 지나갔는데, 바라문은 부처님을 보자 소리쳤다.

“비렁뱅이 까까중아, 거기 섰거라.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바라문에게 물으셨다.

“바라문이여! 당신은 도대체 어떤 것이 천한 사람인지 알거나 하오? 그리고 천한 사람을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소?”

“어디 당신이 한번 말해 보시오.”

바라문이 대꾸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화를 잘 내고 원한을 품으며, 간사하고 악독해서 남의 미덕을 덮어버리고, 그릇된 소견으로 모함하는 사람, 이런 이가 천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오. 생물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여 독재자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 이런 이가 천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오.

마을에 살거나 숲에서 살거나 주지도 않는데 남의 것을 가지는 사람, 이런 이가 천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오. 빛이 있어 값

이라고 독촉을 받으면 언제 빛을 졌느냐고 잡아떼는 사람, 이런 이가 천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오. 증인으로 불려나갔을 때 자신이나 남을 위해, 또는 재물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이런 이가 천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오.

폭력을 써서 혹은 서로 눈이 맞아 친척이나 친구의 아내와 놀아나는 사람, 이런 이가 천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오. 가지고 있는 재물이 풍족하면서도 늙고 쇠약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 이런 이가 천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오. 부모나 형제 자매 혹은 계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이런 이가 천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오.

상대가 이익되는 일을 물었을 때 불리하게 가르쳐주거나 숨기는 일을 알리는 사람, 나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숨기는 사람, 이런 이가 천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오.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 사람이 손님으로 왔을 때는 예의로써 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이가 천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오.

남을 괴롭히고 욕심이 많으며 나쁜 야심을 지녀 인색하고, 덕도 없으면서 존경을 받으려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이런 이가 천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오. 깨달은 사람을 비방하고 출가나 재가의 제자를 헐뜯는 사람, 이런 이가 천한 사람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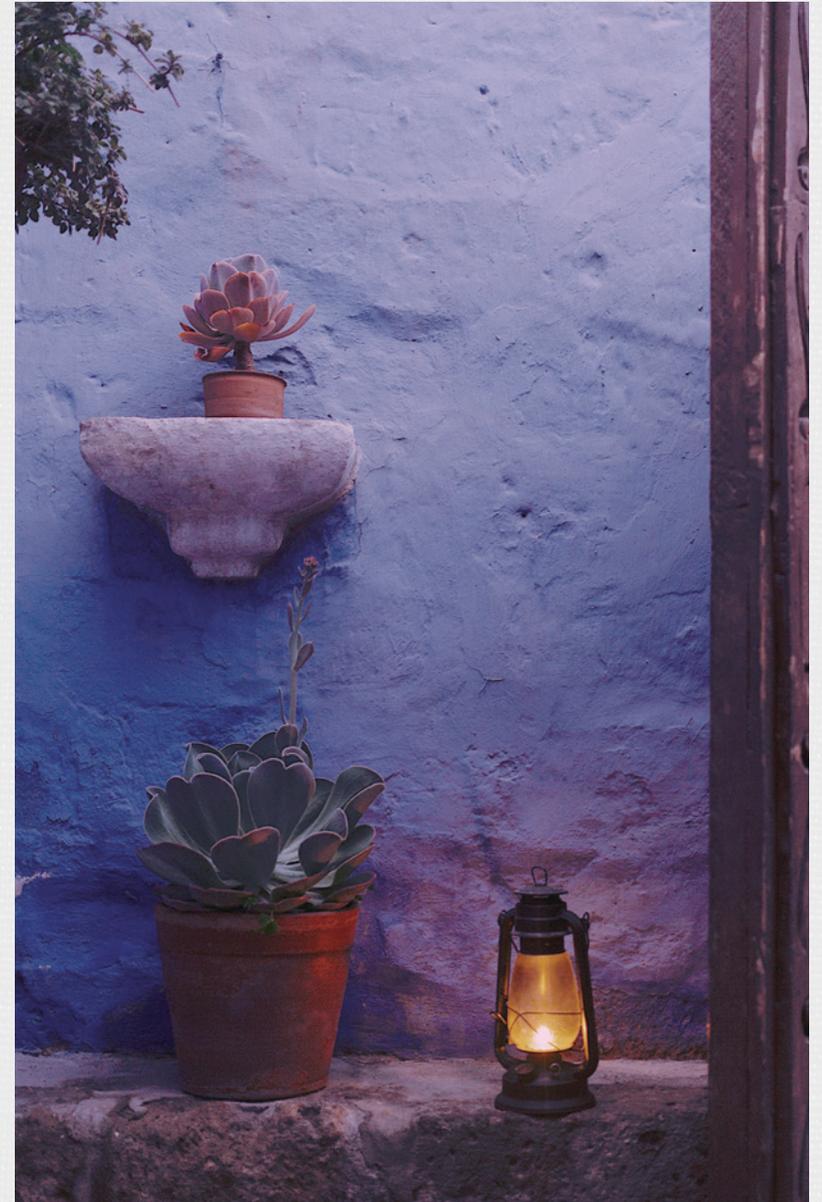
을 알아야 하오.

내가 당신에게 말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천한 사람인데,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오.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오. 오로지 그 행동에 따라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바라문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또는 눈 있는 자 빛을 보라고 어두운 밤에 등불을 비춰 주듯이, 구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구담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구담께서는 오늘부터 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를 세속의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제법집요경, 諸法集要經, 불교총전 발취)



사찰의 커피문화

김상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전공 / 바리스타

사찰에서의 커피문화는 결국 ‘본연^{本然}’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연^{本然}’이란 “인공을 가하지 아니한 본디 그대로의 자연, 본디 생긴 그대로의 타고난 상태”¹⁾를 뜻한다. 따라서 사찰에서 커피 역시 인스턴트 보다는 본디 있는 그대로의 원두 향과 맛을 간직한 원두커피를 지향한다. 추출 도구와 방식 역시 전동의 머신보다는 수동의 핸드드립을 선호한다는 점은 이에 당연한 귀결이다.

보편적으로 불교계에서는 다도에 있어서 흔히 차물을 청결한 수행자의 몸에 비유한다. 차의 향은 수행자의 따스한 자비심에 비유하고, 차 맛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정심, 곧 불성에 견주기도 한다.

이는 ‘본연’과 ‘본성’에 근거를 두었던 선불교의 ‘직지인심 견성성불’²⁾ 정신과 초의선사의 중심사상인 ‘다선일미’로 연결됨을

1)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7292600>. 국립국어원 제공.

2)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 : 선종에서 깨달음을 설명한 말로 교학에 의지하지 않고, 좌선에 의해서 바로 사람의 마음을 직관하여, 불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25590&cid=50826&categoryId=50826> 문화원형 용어사전 제공.



상징한다. 동시에 오늘날 사찰에 자리 잡은 커피문화의 연결고리로까지 이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은 넓게는 사상적으로 사찰에서의 차와 커피의 문화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부분적으로는 차를 마시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커피를 마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차나무와 커피나무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추출 및 음미하는 과정까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분명하게도 차와 커피는 모두 다기와 도구를 이용하여 내리는 사람의 정성어린 마음을 바탕으로 한다. 수행하듯 차와 커피를

추출하여 그 맛을 음미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마음가짐을 근본으로 함은 아무리 찻잎과 콩이 신선한들 그것을 내리는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제 맛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교인이라면 응당 안정된 마음으로 추출과정 속에서 오감을 하나씩 느끼며 상쾌하고 맑은 의식의 전환까지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차와 커피를 향유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찻잎과 콩을 수확하고 선별하는 초기 과정에서도 찻잎과 콩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양과 질이 달라진다. 차에 관한 최상의 맛을 내는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와 커피 모두 수행력인 마음의 정갈함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사찰의 커피문화는 결코 차 문화의 바탕과 유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불교에서는 다양하게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문화에 발맞춰 불교에서 수행을 떠올리면 커피를 빼놓을 수 없듯이, 커피하면 불교의 수행을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도록 대중들에게 의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오늘날 사찰의 커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면에서 일정한 원두제공과 구매처가 불규칙한 실정이다. 수요자

가 알아서 커피를 볶는 집을 찾아 재량껏 구매해 오거나 외부에서 선물로 받아오는 것이 전부이다. 본격적인 커피문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각 불교종단이나 불교와 관련된 기관에서 주도하여 불교문화사업 차원에서 커피공급 사업을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커피문화를 활용하여 불교인들의 취업역량을 키우자는 바램이다. 이에 따라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핸드드립 자격증, 로스팅 자격증과 티소플리에 자격증, 차 품평사 자격증, 제다사 자격증과 같은 차*관련 자격증까지 각 불교종단의 지원 하에 종무원 및 일반인의 교육과정 또는 자기계발 및 취업연계과정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현덕사처럼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에서 커피를 마시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것과 같이 각 사찰 및 사원에서도 커피와 관련된 행사나 프로모션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커피선호와 수행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포교 및 교화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³⁾

3) 실제로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몇 년 전 시니어 클럽을 주최하여 핸드드립 커피를 활용한 다양한 포교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결과, 비록 오래 유지되지는 못하였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호의적으로 나타났다.

〈세한도(歲寒圖)〉는 1844년 제주에서 제작된 이후 176년 동안 여러 주인을 거쳤습니다. 동아시아 삼국을 오간 〈세한도〉의 여정이 고스란히 남아 현재 긴 두루마리로 전합니다. 2020년 손창근(孫昌根, 1926~) 선생의 승고한 결단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세한도〉가 되었습니다.

〈세한도〉와 22편의 감상글로 이루어진 두루마리

〈세한도〉 하면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그림과 글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세한도〉를 보고 한국과 중국의 문인 20명이 쓴 22편의 감상글이 덧붙여져 현재 〈세한도〉는 전체 길이 1,469.5cm의 긴 두루마리 형태로 전해옵니다.

〈세한도〉 두루마리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10년대 초 〈세한도〉 소장자였던 김준학(金準學, 1859~1914)이 오랫동안 앓다가 쾌차한 것을 기념하여 1914년에 쓴 ‘완당세한도(阮堂歲寒圖)’와 시가 함께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1844년에 제작된 김정희의 〈세한도〉, 세 번째는 중국 청나라 문인 16인이 1845년에 〈세한도〉를 보고 쓴 글 16편과 김준학이 1914년에 추가한 글 2편이 4개의 종이에 쓰인 부분입니다. 네 번째 부분이 753.7cm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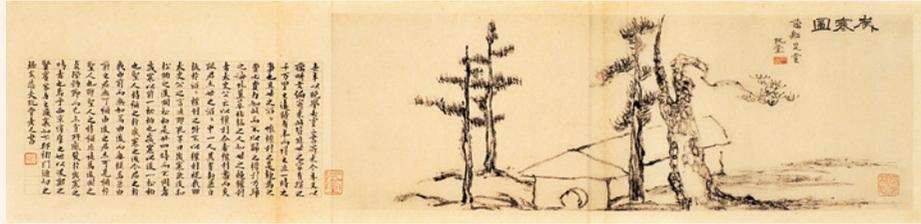
가장 긴데, 한국 근대 지식인 오세창, 이시영, 정인보가 1949년에 쓴 3편의 글과 함께 비어 있는 부분이 거의 5m에 이릅니다.

세한과 송백을 담은 〈세한도〉

〈세한도〉가 제작된 배경은 19세기 전반 세도정치와 관련이 깊습니다. 명문가 자제 김정희는 반대 세력인 안동 김문의 모함으로 55세 때 억울하게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조선시대에 유배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언제 유배가 풀릴지 기한이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김정희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희를 사형에 처하라는 상소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죄인 김정희를 변함없이 대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어 통역관 이상적(李尙迪, 1804~1865)이었습니다. 이상적은 중국에서도 구하기 쉽지 않은 책을 제주의 김정희에게 줄곧 보내주었습니다. 책은 김정희에게 정체성이나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그는 늘 책에서 학문과 예술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김정희는 이상적의 변치 않는 의리를 공자님 말씀을 담은 〈논어〉의 ‘세한(歲寒) 이후 지송백(知松柏) 이후(後凋)’라는 유명한 구절에 빗대어 칭찬하고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세한도〉 속 세한의 표현

‘세한’은 한겨울 추운 날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한(歲寒) 이후 지



김정희, <세한도>, 조선 1844년, 두루마리, 종이에 먹, 23.9×108.2cm, 2020년 손창근 기증, 국보 제180호, 중10000

송백지후조’ 구절은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와 측백 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김정희는 이 구절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했을까요? 둥근 문이 있는 허름한 집 좌우로 소나무 두 그루, 측백나무 두 그루를 세워 놓았습니다. 쉽게 쓱 그린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무줄기와 잎을 표현한 메마르면서 촘촘한 필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물기 없는 마른 붓에 진한 먹물을 문혀 칼칼하게 표현했습니다. 언뜻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마른 붓을 다루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은 김정희가 오랫동안 갈고닦아 이루어낸 필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정희는 메마르고 황량한 세한, 가장 추운 겨울날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가장 어울리는 필법을 찾아낸 것이지요.

중국으로 간 <세한도>

이상적은 중국 출장길에 <세한도>를 소중히 챙겨갔습니다. 그리

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청나라 문인 장요손(張曜孫, 1807~1863)이 주최한 모임에서 <세한도>를 꺼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청 문인들은 <세한도>에 담긴 ‘군자가 송백과 같은 절의를 지키는 일의 어려움과 중요성’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장약진(張岳鎭)은 “세한전 송백의 절조를 먼저 배워야 한다. 오직 그 절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사철 내내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그 절조를 알아주는 자가 없어도 송백은 태연자약하다.”라며 평소 문인으로서 절개와 지조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요손의 매형인 오찬(吳贊)은 “군자는 힘들수록 더욱 굳세어지니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무엇을 걱정하라.”라며 군자의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세한도>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며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자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림이었습니다.

20세기 <세한도>의 여정

김정희가 제자 이상적에게 준 <세한도>는 이후 이상적의 제자 김병선(金秉善, 1830~1891)이 소장하다가, 그의 아들인 김준학에게 전해졌습니다. 이후 민영휘·민규식이 소장했다고 전해집니다. 1932년에는 일본인 학자 후지쓰카 지카시(藤塚隣, 1879~1948)가 <세한도>의 주인이 되었고, 그는 경성제국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김정희의 학문적 성과를 최초로 연구했으며 이한복, 손재형 등과 교류하며 김정희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정년퇴임 후 그는



〈세한도〉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1944년 진도 출신의 서예가 손재형(孫在馨, 1903~1981)은 일본으로 가서 두 달 동안 후지쓰카를 설득한 끝에 〈세한도〉를 돌려받았습니다. 손재형은 〈세한도〉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광복 후 1949년,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정인보, 이시영, 오세창에게 〈세한도〉 감상 글을 청했습니다.

현재의 〈세한도〉 두루마리는 손재형이 꾸민 것입니다. 손재형 이후 개성의 사업가 손세기(孫世基, 1903~1983)가 1970년대부터 소장하였고 장남 손창근이 소중히 간직하다가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하였습니다.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이수경〉 제공

차나무의 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잎이 푸르고 따뜻한 계절에만 차밭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차꽃은 푸르름이 한풀 꺾이는 9월에 피기 시작하여 11월에는 절정을 이루고 추위가 심하지 않은 12월까지 핀다고 합니다.

차꽃은 올해 새로 자라난 가지의 끝부분이나 줄기의 잎과 가지 사이에서 1~3송이가 피어나고 하얀 꽃잎에 노오란 꽃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백의 꽃을 피우는 차꽃이 절정일 시기에는 그 향이 천리까지 진동한다고 하며 꽃술에 눈을 못 뜰 정도로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특히 차 꽃은 꽃과 열매가 서로 같이 열려 있는 유일한 식물로서, 올해 핀 꽃과 지난해에 피었던 꽃의 열매가 함께 공존하는 실화상봉수(實花相逢樹)이기도 합니다.

차꽃은 아름다운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의 차 꽃잎을 두고 옛 사람들은 백의민족을, 다섯 개의 꽃잎 한장 한장마다 고(苦), 감(甘), 산(酸), 함(鹹), 삼(澁) 또는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떼은맛 등의 오미(五味)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주머니에 여러 개의 씨앗을 지닌 특성 때문에 다산을 의미하여 차밭이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신부가 혼인 할 때 예물과 함께 차 씨를 예단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서운 찬바람을 뚫고 피어나는 그 강인함과 차나무의 뿌리가 한 줄기로만 땅속 수직으로 자라는 특성 탓에 옮겨 심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다하여 군자의 지조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면을 지닌 꽃이기 때문일까요? 차꽃은 말려서 차로 만들어 마시면 한 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묘한 맛을 내어 매력적인 차로 불리고, 또는 오미의 다섯 가지 맛을 가지기에 인생의 맛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에 간단하게 생활 속 차꽃 차를 만드는 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 1) 차꽃을 따서 그늘진 곳에서 한송이씩 펼쳐 말립니다. 건조기도 좋으나, 낮은 온도에서 말리는 시간을 짧게 해야 꽃의 아름다운 색깔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 말린 차꽃은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합니다.
- 3) 말린 차꽃을 찻잔에 2~3송이 정도 넣고 80~90도의 뜨거운 물을 부운 뒤 1~2분간 우려 마십니다.

차꽃 차에는 이노 작용, 두통, 숙취 해소에 좋은 성분이 있고 심하지 않은 냉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녹차 잎의 그늘에만 가려져 차꽃의 아름다움과 효능에 대해 지나쳐버렸던 우리들, 그러나 차꽃은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차꽃을 꿀이나 설탕 1:1 비율로 효소로 담아 한 송이씩 찻잔에 띄워 마셔도 좋으며 어린 꽃의 경우 생으로 따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도 좋고 밀전병 속 재료로 쓰거나 차꽃에 소주를 부어 한 달 정도 숙성시킨 뒤 차꽃술로 마시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주변에 차꽃과 함께 하기 좋은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남 하동의 화개골, 하동 쌍계사, 보성의 차밭, 그리고 전남 순천의 선암사 일대에서는 차밭과 야생화와 차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남 순천 송광사 부근 대나무 숲 속은 푸른빛을 띠며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대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어우러지는 차나무에 핀 꽃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밭이 차꽃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계절, 더 늦기 전에 차꽃보러 떠나거나 차꽃으로 꽃차를 만들어 겨울 내 꽃향기와 찻잔 속 순백의 미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동화나라 노래의 섬, 남이섬 ②

관광안내 표지판으로 본 남이섬은 반구 모양의 섬으로 자연과 함께 한다는 자연 주의 컨셉이라 그런지 표지판도 나무와 손글씨로 정겹게 쓰여 있었다. 어느 계절에 방문해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늦은 여름의 남이섬은 하얀 뭉게구름과 초록 초록 잎사귀들의 어울림이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포인트였다. 그리고 겨울연가 드라마에서 준상기와 유진이가 만들던 작은 꼬마 눈사람들은 내 키보다 훌쩍 큰 귀여운 울룩볼룩 몸매의 익살스러운 표정의 눈사람이 되어 한 줄로 서서 우리를 반겨주었다.

여기저기서 겨울연가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드라마 주인공들의 동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사람 모형, 둘의 첫 키스 장소, 포토월 등 모든 장면 장면들이 추억의 장소가 되면서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주인공처럼 사진도 찍어 보고 준상기가 탔었다던 지금은 나무에 매달린 자전거도 설치 미술인 양 찰찰찰 포토존이 되어주었다.



남이섬에는 도깨비 동산이 있었는데 도깨비들의 재미지고 친근한 모습을 개구지게 표현한 조형물들과 함께 숲을 돌아보았다. 이렇듯 남이섬 곳곳의 흠길이가 주는 편안함은 보도블록을 밟으며 걷던 우리에게 마음의 릴렉싱을 만들어 주며 리프레시 한 하루를 선물해 준다.

특히 학생 시절 미술시간 길의 풍경화 속에 등장하던 키 높은 삼각 나무인 메타세쿼이아 나무, 이름은 어렵지만 피톤치드 한껏 내 뿜어 주는 메타세쿼이아 산책길은 양옆으로 나란히 줄을 선 나무들의 초록 잎들이 터널을 만들어 아침저녁으

로는 쌀쌀하지만 아직은 낮의 햇살은 피하고 싶은 나에게 그늘로 걷는 동안 시원함과 상쾌함을 선사해 주었다. 피톤치드가득한 공기까지 한껏 들이마시면 저절로 내 몸이 정화되며 힐링을 가득 품을 수 있었다.

이윽고 물안개 숲길을 걸어가다 보면 연 속의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자유롭게 다니는 동물들이 우리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준다. 공작새며 다람쥐, 청설모, 거위, 오리 그리고 귀여운 토끼 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어우르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남이섬의 매력인 듯하다. 남이섬은 진짜 자연 속 초록의 섬이었다.

한 바퀴를 돌며 시원한 아메리카노도 한잔 마시고 돌아가는 유람선 선착장으로 향하는 길에 들려오는 브라스 밴드 음악소리에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발길.

흰 수염 멋들어진 페도라를 쓴 중년의 뮤지션이 선사하는 익숙한 추억의 팝송에 우린 박수도 절로 치고 엉덩이도 살랑 살랑 흔들며 스텝을 밟아 본다.

“어디서든 밥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씩씩하게 잘 살겠다고 약속해 줘”

겨울연가 준상이기 유진에게 속삭이던 그 말이 문득 떠오른다. 그래, 나도 밥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씩씩하게 지내보기로 다짐한다. 돌아오는 유람선에서 아쉬움을 뒤로하며 남이섬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외쳐 본다. see you again~~~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매력적인 남이섬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소영이와 짧았지만 추억 가득한 여행도 마무리해 본다. 아이들 잠깐 내려놓고 오롯이 우리를 위한 여행이었다.

“소영아 ~ 다음엔 우리 여수로 가 볼까? 어때?” ^^

그리운 사람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술 한 잔 마시고 싶어

저녁때 돌아오는

내 취한 모습도 좋겠네

그리운 사람

그리운 모습

- 춘천 가는 기차 song by 김현철

49재와 제사 재齋와 제祭의 차이는 무엇인가?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49재齋는 고인이 되신 분을 위해 명복을 빌고 천도(薦度 :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함)의 뜻이 있는 불교의식입니다. 49재를 통해 고인의 악업을 소멸하고 극락세계로 인도합니다. 49재의 재는 산스크리트어(Uposadha:우보사타)를 번역한 것이며, 7일마다 불경을 외면서 7번의 재를 올려 49재를 칠칠재(七七齋)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49일간을 ‘중유(中有)’ 또는 ‘중음(中陰)’이라고 하는데, 고인은 이 기간 동안 생전의 업(業)에 따라 다음 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인은 49일동안 일곱 번에 걸쳐 명부전의 시왕(十王)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1주차는 진광대왕(도산지옥), 2주차는 초강대왕(화탕지옥), 3주차는 송제대왕(한빙지옥), 4주차는 오관대왕(검수지옥), 5주차는 염라대왕(발설지옥), 6주차는 변성대왕(독사지옥), 7주차는 태산대왕(거해지옥)에서의 심판을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일곱 대왕이 심판한 것을 참고하여 마지막 막으로 명부시왕 중의 우두머리로 여겨지는 염라대왕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고인은 6도문(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중 1개의 문으로 들어가 새로운 생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죄업을 많이 지은 고인은 49일 이후에도 3명의 대왕에게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후 100일이 되는 날에는 제8 평등대왕(철상지옥), 1년이 되는 날에는 제9 도시대왕(풍도지옥), 3년째에는 제10 오도전륜대왕(흑암지옥)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염라대왕은 업경대(생전에 지은 죄를 보여주는 거울)를 통하여 고인을 심문합니다. 염라대왕이 관장하는 발설지옥(拔舌地獄)은 생전의 말에 대한 죄값(거짓말, 이간, 험담)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형벌로 죄인의 혀를 길게 뽑아 소의 쟁기로 받을 갈 듯이 고통을 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찰의 명부전 염라대왕 후불탱화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사(祭祀)란 무엇일까요?

제사의 사전적 의미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혼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유교의식을 말합니다. 제(祭)의 한자를 보아도 고기 육(肉)을 보여주고 있어 기제사때 추모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의 제(祭)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 추석, 조상차례에 유교적 관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불교적 관점인 49재의 재(齋)와 차이가 있습니다.

삼종三種 만다라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만다라는 깨달음의 세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현실의 형태를 가진 만다라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만다라라고 해도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만다라를 세 가지 [삼종, 三種]로 구분 정리하여 이해했다. 세 가지란 ‘자성만다라^{自性曼荼羅}’ ‘관상만다라^{觀想曼荼羅}’ ‘형상만다라^{形像曼荼羅}’이다.

첫째 자성만다라에서 자성^{自性}이란 본질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성만다라는 불변하는 진실 자체의 만다라를 뜻한다. 석존이 깨달은 것은 연기하는 전존재^{全存在}의 본연의 상태이며, 우주 구조의 근원이다. 반야경에서는 그것을 ‘매우 깊은 반야바라밀의 작용’이라고 표현하고, 밀교에서는 ‘대일여래의 (일이며) 작용’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자성만다라는 말이나 형태로 나타내거나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일체의 존재 뒤에 있는 깨달음 자체가 자성만다라이다.

둘째는 관상만다라이다. 밀교에서는 자성만다라를 체현^{體現}하는 방법으로 유가관법^{瑜伽觀法}이라는 수행을 실천한다. 유가란 본존(깨달음)과 자기가 결합되어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유가란 산스크리트 요가(yoga)에서 온 말로 원래는 명에^繩의 의미이다. 명이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로 소나 말의 목을 누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 불교에 도입되면서 여러 개념이 부가되고, 유가를 통해서와 같이 부처와 자신을 연결하는 실천방법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게 된다. 유가는 ‘상응^{相應}’이라고도 번역되듯이 부처와 중생이 상응하는 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으로 진언행자는 ‘의궤^{儀軌}’나 ‘차제^{次第}’에 따라 유가관상^{瑜伽觀想}하고 대일여래의 깨달음을 나타낸 만다라의 세계에 오입^{悟入}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궤’라는 말이 나왔는데 ‘경’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경’은 부처님이 설파한 가르침을 적은 것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문자로 나타낸 것인데, ‘의궤’나 ‘차제’는 ‘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추체험하기 위한 행법 즉 수행방법으로 조직화된 것을 말한다. 즉 ‘의궤’에 기록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만다라를 개현^{開顯}할 수 있다. ‘의궤’를 따라 관상하고 만다라를 마음속에 건립해 나가는 것이 관상만다라이다.

셋째는 형상만다라이다. 형상만다라는 구체적인 도화^{圖畫}나 존상 등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만다라를 말한다. 아직 수행이 충분하지 않은 행자에게는 ‘경’이나 ‘의궤’만으로는 도저히 추상적이어서 이것만으로는 만다라를 떠올릴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만다라를 놓고 형상 등에 일정한 약속을 한 다음 시각을 통해 만다라행을 닦는 방법이 이루어졌다. 이 대상이 되는 만다라가 형상 만다라이고,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 등 우리가 흔히 만다라라고 칭하는 것이 이것이다.

히말라야의 별, 깊이 바라보다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묵탁소리' 지도법사

언젠가 히말라야 산길을 걷다가 촌롱이라는 산중 마을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저녁을 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밀린 빨래도 해서 널고 촌롱의 밤공기에 몸과 마음을 씻으러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아! 또 한 번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등장한다.

나는 이런 밤하늘을, 이런 별들을, 이런 은하수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지리산에서 보았던, 그리고 설악산 중청산장과 지난 가을 비온 뒤 강원도 양구에서 보았던 별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밝고 초롱초롱히 빛나는 별들을, 그것도 몇 배는 많은 숫자를 지금 한 눈에 바라보고 있다.

별빛이 이렇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 깨닫고 있다. 어떻게 저토록 많은 수의 별들이 쏟아져 내리지 않고도 저렇게 떠 있을 수 있는지. 내 생애 이렇게 많은 별들의 숫자를 헤아려 본 적은 없다. 지금 이 순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별에 대한 고정관념, 별빛에 대한 가치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전혀 새로운 의미로써 새겨지고 있다. 말문이 막힌다. 도무지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별똥별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이에게 한 여행자는 태연히 말했다.

“하늘의 별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5분 이상만 눈을 안 떴고 별을 지켜보면 분명히 별똥별을 볼 거예요. 5분, 10분에 한 번꼴로 별똥별이 떨어지거든요.”

과연 그 말이 맞았다. 거의 정확하게 5분에 한번 꼴로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다.

저렇게 자주 떨어지는 별똥별을 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았을까. 밤하늘에서는 매일 같이 저 고장한 별들의 공연이 5분마다 펼쳐지는 동안 우리는 우리 인생의 30년, 40년 아니 70년, 80년을 단 한 번도 저들을 보지 못하거나 단지 몇 번 보고 소원을 빌 정도로 우리의 관심은 별에서 하늘에서 우주에서 자연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무언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낯선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다. 빨리 해야 할 일을 해치우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업무를 소화해 내고, 남들에게 뒤질세라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바빠서 잠시 멈추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익숙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도 비생산적이며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과연 그런가?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무언가를 향해 나의 주와 시선을 모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의미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가장 흔히 간과되며,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삶의 비밀스런 진리가 바로 이 '바라봄'에 있다.

'분별없는 바라봄',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어떤 한 대상을 관찰해 보라. 분별없이 다만 지켜보기만 해 보자. 바로 그 때 우리는 바로 그 대상과의 진정한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진정 의미 있는 관계로 맺어질 수 있고, 참으로 그것을 사랑과 자비로 어루만지게 된다.

보통 우리가 보는 바라봄이란 현재를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어떤 틀이나 관념으로 대상을 끼워 맞추는 것이기 쉽다. 분별망상으로 걸러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그 어떤 틀이나 생각, 관념,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채 그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세상을 눈부신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바라봄의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연이든, 별이든, 한 송이 꽃이든 그 속에서 자신의 본래면목을 발견할 것이고, 그 순간 내 안에서는 한 송이 연꽃이 만개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축복을 부여받는다.

- '법상 스님의 묵탁소리' 공식 카페



김용오 | 포항 수인사 교도

회초리 맞는 세월

노부부의 사랑이 시작된 이불
네 귀를 나누어 잡고
세월을 털고있다

한번 털다 할땀이 한 귀를 놓쳐 버렸네
허 허
힘이 그리 없어서야 다시 잡고
두어 번 털다 할땀이 또 놓친다
허 허

할아버지가 이불을 빨랫줄에 걸고
세월의 무상함을 원망이나 하듯
회초리로 사정없이 팬다

그 긴 세월들이 먼지 되어 날아간다
허공 속으로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㉑		㉒			②	㉓		㉔	
				㉕					
		③				④			
	⑤㉖					⑥	㉗		㉘
					㉙				
⑦			㉚						
			⑧			㉛		㉜	
⑨㉝						⑩	㉞		*
		⑪							

가로 열쇠

- ①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 발원을 다짐하는 불교 의례, 팔죽 공양
- ② 발뒤꿈치에 있는 강한 힘줄, 그리스의 전설적인 영웅 고사에서 유래
- ③ 고려 제 25대 왕, 칭기즈칸 후예 출신 황녀와 혼인한 고려의 첫 군주
- ④ 중국 역대 왕조가 쌓은 긴 성벽, 진시황제의 상징
- ⑤ 넓고 커서 끝이 없는 자비라는 뜻
- ⑥ 특정 지역에서 재배되고 가공된 농산물
- ⑦ 인도의 대표적 이슬람 건축
- ⑧ 아프리카 봉사에 헌신한 독일계 프랑스 의사, 음악가, 노벨평화상 수상자
- ⑨ 사찰 법당 꽃살문 장식의 토대
- ⑩ 불교에서 아미타불이 살고 있다는 청정한 국토
- ⑪ 퍼즐 조각 게임

세로 열쇠

- ㉑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 중국에서 귀한 약재로 알려진 버섯
- ㉒ 벌붙어 사는 벌레, 봉준호 감독 영화 제목
- ㉓ 조선시대 현왕의 할머니, 왕실의 최고 어른
- ㉔ 아프리카의 지붕으로 불리는 탄자니아 화산괴, 조용필 노래 제목
- ㉕ 겨울 레저스포츠 즐기는 장소
- ㉖ 지혜를 상징하는 아미타불 오른쪽 협시보살
- ㉗ 불교에서 여자 재가신도를 이르는 말
- ㉘ 색을 칠할 수 있도록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
- ㉙ 원피스로 된 여성 옷, 웨딩000
- ㉚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휴양지, 영화 사운드오브뮤직의 배경
- ㉛ 24절기 중 귀뚜라미 등을 타고 오는 절기, 늦여름 더위가 물러가는 때
- ㉜ 무엇이 못마땅하여 때를 쓰며 조르는 일
- ㉝ 이름난 학자 밑에서 배우는 제자
- ㉞ 불교에서 지비행 실천을 위해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는 것
- * 점토를 반죽하여 500°C 이상의 고온에서 만든 용기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중 홍보실

●정답은 위드다르마 다음 호, 총지신문 12월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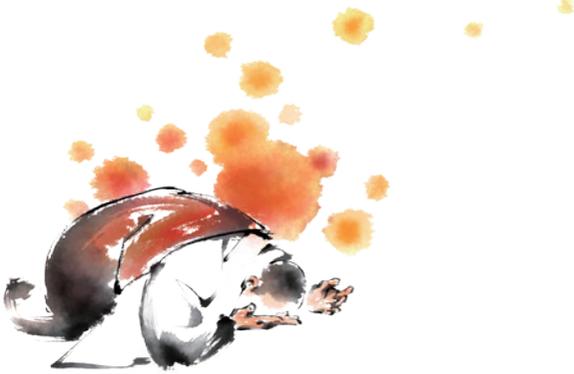
지난호 정답

①㉠	안	㉡		②㉢	레		③㉣	비	㉤
동		㉥	발		자		심		
상		④	중	해	갈		장		
이		지	국		⑤㉦	망	치	㉧	
⑥	유	㉨		애			⑦	㉩	약
몽		병		⑧	응	보			사
		인	과						
⑨㉪	평	양		급		㉫		⑩	여
태						난		부	
조		요		⑪	*	로	드		래
왕			공		림			⑫***	불
⑬	**		주			⑭#	판	악	
건	축					성			
	⑮	노	병	사		게		⑯	벌
	생							설	

지난호 독자 정답

①㉠	안	㉡		②㉢	레		③㉣	비	㉤
동		㉥	발		자		심		
상		④	중	해	갈		장		
이		지	국		⑤㉦	망	치	㉧	
⑥	유	㉨		애			⑦	㉩	약
몽		병		⑧	응	보			사
		인	과	차	상	용			
⑨㉪	평	양		급		㉫		⑩	여
태						난		부	
조		요		⑪	*	로	드		래
왕			공		림			⑫***	불
⑬	**		주			⑭#	판	악	
건	축					성			
	⑮	노	병	사		게		⑯	벌
	생							설	구

신동진님의 정답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상반기 49일	양력
	오전 10시	진호국가불공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종량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대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심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 아름 바다를 안은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선물'입니다.
시인은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의 만족,
당신이라는 선물의 기쁨으로
바다를 안은 듯한 행복을 느낍니다.

만족 기쁨 행복을 노래할 때
사고와 죽음으로 우리는 비통했습니다.

다시는 오늘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는 오늘 애도의 눈물나지 않기를

오늘이 '선물'이 되고
당신이 '기쁨'이 되는
내일의 희망을 다시 가져봅니다.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워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워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년자 김종철 남달리 반야화 법 공
서정구 송서아 송영근 송하나 송호영 안한수
오승헌 오채원 오현준 이영희 이인성 이태남
이혜성 자선화 정화연 총지화 한철수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2월호



원하건데 모든 중생이
항상 안락원에 주하여 길이 안락하기를
고뇌하고 고뇌 겪을 인연 멀리 여의으며
서로 버려 여임 없이 더불어 기뻐하며
인아상을 다 버리고 원친 평등하여지이다

- 환당 대중사 법어록 중에서 -